

김용민브리핑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전통방식 속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흥어	alssahan.co.kr
중고차 사고 팔 때엔	1800-9538
조광래중고차	cafe.naver.com/ckrca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뚫!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공장사랑	jangsarang.com
맛집 창업전문컨설팅은	010-4826-7784
몬스터셰프	facebook.com/monstershef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몰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다큐	10월 13일 대개봉
자백	goo.gl/IQZiap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망고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원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미수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행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반기문은 절대 안 된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예측은 아직 선부르다는
찝찝함을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 박근혜 정권이 대통령 선거
를 공정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
요 선거 고비 고비마다 관권을 휘두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미 본인 자신도 대선 때 국가정보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전
폭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기 대선
은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그 과정부터 결과
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씨가 미는 후보가 있어서
권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개표 조작이 없는 한 당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기문 씨가 박근혜 씨 지지를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씨가 극렬 지지
하는 후보가 있어서 전폭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이 역시 당선을
낙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위엄이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나 정권교체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
제는 주지하는대로 박근혜입니다. 박근혜에게 정권교체는 악몽
입니다. 비선에서 결사 저지할 것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저지의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차기 대선 당선자는 박근혜 씨에게 여야를 불문하고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은 자,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대의를 가
장 많이 확보한 자라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정치판에서 이렇게
할 '촉'들은 박근혜 씨와 각을 세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어 보이는 '여론조사 지지율 1위' 반기문 씨에게 대권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야당은 현재 어떤가요? 박근혜 씨가 자멸해 국민이 더는 여당
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당 집
권 저지 수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듯 보입니
다.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등 야권 후보가 당선되는 꼴
을 볼 바에야 차라리 유승민을 내세우자, 이 카드를 꺼낼 것이
라는 판단은 아직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박승춘, 고영주, 고대영에게 그 모욕을 당하고도 뭐 하
나 제대로 응징할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
스트, 최순실에 밟힌 공무원이 퇴출당한 사안도 1분 정도 길
이의 대변인 논평으로 대응 끝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비롯한
팟캐스트는 매서운 죽비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세력 교체
를 넘어 정치 교체를 바라는 대안 미디어의 본령일 테니까요.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0월 13일(목) 1부 | '반기문 대통령' 불가능한 이유

[오프닝] 야당, 차 타지게 안 싸우면 유승민 어부지리할수도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동아] 차은택 석사 논문 속 '나나걸스' 국고지원 받아 탄생

- [경향] 우순실 건드린 조선일보 계열사 세무조사 중

- [경향] 왜 전문의 놔두고 수술경험 1회 백선하 시켰나

- [한겨레] 백남기 사망은 '빨간 우의' 탓?...속내 드러낸 검찰

- [조선] 야 "우병우 국감 안 내보내면 청와대 예산 삭감키로"

[뉴스듣기능력평가] '비뽀 꿀벌, 슬퍼하지 않아' 격언 관련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시리아 공습 비난 마땅...그런데 서방국은 자격 없어"

- 우리 영해 어선 침범 관련 중국의 생떼 "한국 정부 미쳤나"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의료부문 성과연봉제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

- 돈은 총선에 압도적 영향을 미치지만 대선은 다르다!

[공화국 논평] '외압 퇴출' 폭로한 노태강에 대한 중대조치

차은택 게이트

東亞日報 논문 속 걸 그룹 정부예산으로 탄생

‘고고로켓씨스타’라는 사이버 걸그룹이 데뷔했다. ‘아담’ 이후 오랜만에 등장한 사이버 가수로 화제를 모으며 수억원의 정부 예산도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 사이버 걸그룹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 감독과 연관이 있어보인다. 2013년 차은택 감독이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는 3D 캐릭터들이 ‘고고로켓씨스타’와 매우 흡사하다. 이름도 거의 같고 외모 또한 판박이다. ‘고고로켓씨스타’를 만든 사람은 차은택 감독과 20년 지기다. 차은택 감독이 지인을 시켜 본인의 캐릭터를 데뷔시키고 정부예산도 셀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국고가 차은택 감독 호주머니가 됐다는 이야기?

경향신문 관계사, 허위 이력으로 15억 받아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이력을 허위로 기재해 15억 원대 국고보조금을 받아냈다.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는 차은택 감독의 측근인 김홍택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또한 여기에 더해 미르재단과의 유착의 증거가 발견됐다. ‘미르재단 K-Project’를 실행했다며 허위로 이력을 기재한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경향신문 “금메달 가져온 비선실세 딸 뺨아라”

2014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특례입학했다. 이 과정에서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정유라의 입학학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입시 평가 담당 교수들에게 “금메달 가져온 학생을 뺨아라”이렇게 지시했던 것이다.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다. 체대 입시 평가에 참여했던 한 일원은 “입학처장의 발언이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 못한다.”이렇게 밝혔다. 입학처장의 발언이 정유라의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한국일보 “靑·문체부 상부 문제는 언급말자”

지난해 6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박명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상부의 지시에 무방비 상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연극계에 대한 지원이 적는데, 연극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정부와 협의하면 탈락시킨다는 것이다. 그러자 박명진 위원장은 ‘위원들이 청와대 문제, 문화체육관광부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회의를 녹음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를 정회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강파 정부, 21세기에 구현

경향신문 국감 막으려 특별감찰관실 공중분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특별감찰관실 직원들 전원에게 퇴직 통보했다. 이 사람들 우병우와 최순실을 조사하다 잘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부하들이다. 특별감찰관법에는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되면 직원들도 함께 퇴직한다고 돼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퇴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석수 전 감찰관의 본래 임기는 2018년까지라서 ‘과잉 유권해석’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직원들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다. 직원들의 해임 권한은 특별감찰관에게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직원들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퇴직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경향신문 비선 건드린 조선일보, 제대로 곤욕

국세청이 조선일보 계열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 내 중수부’로 통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맡았다. 그러나 서울지역 관할 세무서가 아닌 서울청 조사국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조선일보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자 세무조사가 들어온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앞서 ‘정윤희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한 세계일보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사인 조작으로 귀결되는 백남기 비극

경향신문 전문의 놔두고 등산복 입고 와 수술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이송되던 날 당직 의사는 조원상 부교수였다. 조원상 부교수는 학술상, 올해의 교수상을 받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경막 하출혈’ 수술 경험 또한 풍부했다. 그날 고 백남기 농민이 받았던 수술이 ‘경막 하출혈’ 수술이었다. 하지만 이날 수술을 집행한 백선하 교수는 ‘경막 하출혈’ 수술 경험이 한번 뿐이었다. 그마저도 고 백남기 농민의 수술 3년 전의 일이었다. 전문의가 당직 중이었는데 해당 수술경험도 별로 없는 백선하 교수가 등산복 차림으로 돌아와 수술을 한 것이다.

한겨레 검찰, 사인 조작을 위한 속내 드러내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것은 동영상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서는 '빨간 우의설'을 떠들어댔다. 백남기 농민을 구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백남기 농민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검찰도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빨간색 위의 착용자가 고 백남기 농민에게 충격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백선하 교수마저 부인하는 낭설이다. “고 백남기 농민의 함몰부위는 단순 외상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상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다.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하던가.

우병우 나와라 안 나오면...

朝鮮日報 청와대 예산 삭감 카드가 있었네

체가 강남 땅 매매 의혹과 비선 실세 논란이 있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 수석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청와대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예산 삭감은 국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맡게 된다. 아, 이런 무기가 있었네. 조선일보가 알려줬다.

윗물이 시궁창이니...

세계일보 금감원, 금수저 특혜 채용 의혹

30대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에 법률전문가로 채용됐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한지 한 달 만에 채용됐다. 실무수습 과정도, 관련 기관 근무경력도 없었다.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전문가로 채용된 것이다. 채용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부친은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했던 전직 국회의원이다. 또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는 행정고시 25회 동기, 절친이다.

여론조사 2題

세계일보 '경제는 새누리당'? 지지 8% 빠져

세계일보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내부 분석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일체감을 느낀다는 유권자의 비율은 8% 하락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약 2% 포인트 상승했다. 새누리당의 정당일체감이 하락한 것은 집권여당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일보 여론조사 덜 믿는 똑똑해진 유권자

4·13 총선에서 '여론조사 무용론'이 대두됐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똑똑한 유권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여론조사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12% 증가했다. 지난 3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말이다. 또한 투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선과 총선에서는 정당이나 공약보다는 인물이 유권자의 투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악재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국민일보 실업난, 가계부채, 수출·내수 부진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실업률은 3.6%를 기록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준비생은 실업을 통계에서 빠진다. 이들을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10%대에 육박한다. 수출 또한 자동차, 휴대폰의 수출 실적 하락으로 대폭 감소했다. 여기에 가계부채는 지난달에만 6조1000억원이 늘었다. 내수 역시 여전히 불안하다. 제조업 수출 부진과 고용난, 가계부채 증가로 내수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어린이 건강권 벼랑에

서울신문 전국에 소아외과 전문의 30명 뿐

소아외과 전문의는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인력이다. 하지만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30여명에 불과하다. 일본의 3%, 미국과 비교하면 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인구는 700만명 정도다. 소아외과 전문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2년의 수련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500건의 소아외과 수술, 거기에 50건의 신생아 수술도 마쳐야 한다. 그러나 힘든 과정을 거쳐 소아외과 전문의가 되더라도 수익성이 낮고 업무량이 과중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수련 지원자가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다.

평생교육단과대 설치 파문 2라운드

東亞日報 선배 검사가 후배들 도왔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설치 문제로 이화여대는 학교 측과 학생들이 갈등을 빚었다. 이에 학교 측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학생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이화여대 출신 법조인 선배들을 찾아가거나 조언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화여대 출신 여검사가 수사기관에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해줄겠다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말한 단서가 포착됐다. 검찰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일부 확보하고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비겁한 나의 참회록”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비겁한 나의 참회록”입니다.

“얼마 전 북한이 또 한 번의 핵실험을 자행한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이 붓물 터진 듯 쏟아졌다.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틀어쥐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제는 대화를 시작할 때라는 목소리도 커져간다. 정부의 입장을 되뇌는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가 중요하고 있다는 추측성 분석에 덧붙여 급변사태, 선제타격, 전술핵 배치 등 무책임한 주장을 늘어놓고, 상대적으로 대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북에 대한 동정심에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 징후를 애써 외면하려 한다.

모두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고 하지만 사실 진영논리에 충실할 뿐이다. 게다가 북한 ‘전문가’의 직함으로 미디어를 누비는 이 대부분이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진정한’ 지식인이 되기란 쉽지 않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지식인은 사회 내 존재로, 특정 계급의 일원이기엔 결코 객관적일 수 없지만 객관성을 추구해야만 하는 존재적 모순을 안고 살아간다. 덧붙여 지식인은 이들의 존재 이유인 ‘지식’이 사실 지배계급의 은폐된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를 폭로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인 존재이다. 즉, 이들은 자신의 존재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만이 ‘진정한’ 지식인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그만큼 ‘지식인’이 되는 것은 외롭고 괴로우며 자기 분열적인 과정이다. 얼마 전 중국 용정의 명동촌에서 만난 윤동주의 고뇌를 기억한다. ‘쉽게 씌어진 시’의 한 구절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둠이 짙게 드리운 한국에서 ‘진정한’ 지식인이 되기란 이다지도 어려운데, 난 오늘도 ‘쉽게’ 글을 쓰고, ‘쉽게’ 강단에 선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백선하 씨에게 이 칼럼을 포워딩한다.

국정원 빠진 대선을 원합니다
영화 ‘자백’ 1000만이 답입니다

액션 블록버스터 저널리즘

자백

상영관 리스트

2016년 10월 12일 19:00기준

서울

- CGV강변 / CGV구로
- CGV대학로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 CGV상암 / CGV신촌아트레온
- CGV압구정 / CGV여의도 / CGV용산
- 메가박스 강남 / 메가박스 동대문
- 메가박스 센트럴 / 메가박스 신촌
- 메가박스 코엑스
- 롯데시네마 강동
-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 롯데시네마 독산 / 롯데시네마 신도림
- 롯데시네마 용산 /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 대한극장 / 서울극장 / 아리랑시네센터
- 아트나인 / 아트하우스 모모
- 에무시네마 / 인디스페이스

경기

- CGV동수원 / CGV소풍 / CGV오리
- CGV일산 / CGV의정부태흥
- 메가박스 김포 / 메가박스 남양주
- 메가박스 분당 / 메가박스 백석
- 메가박스 안산중앙 / 메가박스 일산
- 메가박스 파주금촌 / 메가박스 파주출판도시
- 메가박스 하남스타필드
- 롯데시네마 범정 / 롯데시네마 부천(신중동역)
- 롯데시네마 부천역 / 롯데시네마 산본
- 롯데시네마 센트럴(안산)
- 롯데시네마 안양월변가 / 롯데시네마 주엽
- 명필름아트센터 / 여주 월드시네마

인천

- CGV인천 / 메가박스 검단 / 메가박스 연수
- 메가박스 인천논현 / 롯데시네마 부평
- 부평 대한극장 / 영화공간주안

* 상영관 리스트는 개봉일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상영관 리스트에는 예매 준비중인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션 블록버스터 저널리즘

자백

상영관 리스트

2016년 10월 12일 19:00 기준

대전

- CGV대전 / 메가박스 대전

충청

- CGV당진 / CGV천안판타포트 / 메가박스 공주
- 메가박스 충주 / 롯데시네마 서산
- 롯데시네마 청주(성안길) / 청주 SFX시네마

광주

- CGV광주첨단 / CGV광주터미널
- 메가박스 광주(송정로) / 메가박스 광주상무
- 메가박스 광주해남 / 메가박스 전대
- 메가박스 첨단 / 롯데시네마 수완 / 광주극장

전북

- CGV군산 / 메가박스 송천 / 메가박스 전주(객사)
- 롯데시네마 군산 / 롯데시네마 전주(영화)
- 전주디지털특별영화관

강원

- CGV강릉 / CGV원주 / CGV춘천 / 메가박스 원주

울산

- 롯데시네마 울산성남

전남

- CGV목포 / 메가박스 목포하당 / 메가박스 신대(순천)
- 메가박스 여수 / 구례자연드림시네마

대구

- CGV대구 / 롯데시네마 동성로 / 롯데시네마 성서
- 메가박스 대구(칠성로) / 동성아트홀 / 오오극장

부산

- CGV서면 / 메가박스 덕천 / 메가박스 부산대 / 메가박스 장산
- 메가박스 해운대 / 롯데시네마 광복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 롯데시네마 오두 / 롯데시네마 해운대 / 극도예술관 / 아트씨어터 씨앤씨

경북

- CGV구미 / 메가박스 안동 / 롯데시네마 경산 / 롯데시네마 구미
- 롯데시네마 구미공단 / 롯데시네마 포항 / 중앙시네마

경남

- 메가박스 가창 / 메가박스 진주 / 롯데시네마 진주(중앙동)
- 롯데시네마 통영 / 씨네세븐 거제 / 씨네아트 리움

제주

- 메가박스 제주

* 상영관 리스트는 개봉일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상영관 리스트에는 예매 준비중인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